

韓美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유 ‘환율관찰 대상국’ 제외 가능성

재무당국 환율정책 합의

양국 재무당국 소통·신뢰 재확인
‘동화가치 수호’ 기본원칙 확립
원화절상 압박 질문에 “해석 영역”

한국은 향후 원·달러 환율 관련 시장 안정조치를 단행한 경우 매월 미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한미 양국 재무당국은 1일(한국시간) 오전 이 같은 내용의 환율정책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다만 이 합의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제의를 100% 담보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보다 낮은 ‘관찰대상국’에 올라 있다.

양국은 지난 4월 하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환율이 비관세 부문 의제에 오름에 따라 상호관세 협상과는 별도로 논의를 이어왔다.

우선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대외에 공개해 온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월별로 미 재무부와 공유(대외 비공개)해야 한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 및 선물환포지션 정보를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대외 공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환

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과도한 변동성 또는 비정상적 시장상황 발생 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라는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재무당국 간 긴밀한 소통·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은) 일본, 스위스 등 각 나라와 유사한 틀을 갖고 합의했지만,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거기에서 변형된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며 “‘안정’이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달러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미국이 관심을 갖고 같이 외환시장의 안정을 봐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안정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협의하겠다는 뜻”이라며 “좀더 적극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커졌다. 현재 한국은 환율조작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보다 낮은 단계인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이는 11월 발표될 환율보고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합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환율조작국으로) 조정되게 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다만 이견 11월 환율보고서가 나와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원화절상 압박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다. 협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절상을 하라는 것은 없었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의 이행을 포함해 앞으로도 국내 외환시장 상황과 환율정책 운용 등에 대해 미 재무부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의에서 양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또는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하며, 환율 방향성과 무관하게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中, 韓 스마트폰 시장 ‘정조준’ ‘삼성·애플’ 양강체제 흔들리나

국내 법인 설립 등 공세 강화
서비스 품질·브랜드 신뢰도 관건

중국 전자제품 회사 샤오미가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워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하면서 삼성과 애플이 장악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도전장을 던져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가격이 삼성의 프리미엄 제품군과 큰 차이가 없어 경쟁력이 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오프라인 서비스센터까지 열며 공세를 강화하는 만큼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서비스 품질 경쟁에도 불이 붙는 모양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는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 ‘샤오미 15T 프로’를 공개했다. 지난 1월에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며 한국 시장 공세를 강화한 데 이어 샤오미 스토어 2·3호점을 연달아 선보였다. 이 같은 행보를 통해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0%대에 머무는 상황을 깨고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샤오미가 서비스 품질과 브랜드 신뢰도를 여전히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내 시장이 삼성·애플·샤오미 3강 구도로 굳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브랜드 파워와 안정적인 서비스, AS, 보안 플랫폼과 프리미엄 중심 전략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각에



샤오미코리아가 지난달 25일 서울 광진구 샤오미 스토어 2호점 개장과 신제품 ‘샤오미 15T 프로’ 출시를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는 샤오미의 국내 공세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서비스 품질 경쟁까지 촉발할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서비스 부문에서 강점을 유지 중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휴대전화 AS부문에서 한국표준협회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2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업계 최초로 ‘디스플레이 단품 수리’ 서비스를 도입해 주목받았다. 삼성만의 엔지니어 기술력과 전문 장비를 통해 서비스센터에서 즉시 단품 수리가 가능해지면서 고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만큼 샤오미가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가격적인 가격을 내세우지 않는 이상 소비자 공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온라인쇼핑, 티메프 사태 이후 첫 증가세

자동차·문화·통신 등 큰 폭 증가

온라인쇼핑 시장이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다. e쿠폰서비스 거래액이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 사태 이후 처음 증가로 돌아섰다.

1일 국가데이터터(舊 통계청)가 발표한 ‘8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조4802억 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6.6% 늘었다.

온라인쇼핑은 앞서 지난 7월 큰 폭으로 상승하며 반등을 시작했다. 이후 8월 들어 e쿠폰서비스가 1년 전보다 8.6% 늘어나며 1년여 만에 처음 증가 전환했다. e쿠폰서비스는 티메프 사태 이후 올해 7월까지 1년 넘게 감소한 바 있다.

거래액을 상품군별로 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55.1%), 문화 및 레저서비스(28.0%), 통신기기(24.8%) 등에서 크게 늘었다. 화장품(10.9%), 패션용품 및 악세서리(9.9%), 음식서비스(9.0%), e쿠폰서비스(8.6%)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가방(-7.0%), 신발(-3.0%), 가구(-0.2%), 기타서비스(-41.6%) 등에서 거래가 감소했다.

국가데이터터 관계자는 “온라인 총거래액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7월 7.8%, 8월 6.6%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작년 티메프 사태의 기저 효과가 소거되면서 전체적으로 동월비도 조금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반도체 호조… 아세안·EU 역대최고 실적

》 1면 ‘9월 수출 42개월…’서 계속

바이오헬스는 35.8% 늘어난 16억 8000만달러로 9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고, 자동차는 미국 수출이 부진했으나 EU(+54%), CIS(+78%) 등으로 급격히 다변화하며 64억달러(16.8% ↑)로 9월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 시장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모두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116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0.5% 늘며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아세안(110억6000만달러, +17.8%), EU(71억6000만달러, +19.3%)는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대만 수출도 반도체 호조에 52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자동차·철강·일반 기계 등 고율 관세 품목 부진으로 102억 7000만달러에 그쳐 전년 대비 1.4% 감소,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29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 ‘반색’

역대최대 규모 신용사면

카드업계, 실적회복 기대감 고조
일각선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도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으로 카드업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용사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작된 정부의 신용사면 정책으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연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기존 연체 이력이 삭제되며, 신용점수 회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소액 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다. 이들이 모두 연체액을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신용사면을 받는 국민은 총 370만 3000명이다.

역대 규모의 신용회복으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자,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카드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현재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승인 건수 및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여신금융협회 ‘2025년 8월 카드 실적’에 따



정부의 역대 최대규모 신용사면이 카드업계에 긍정적인효과를 가져올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 /뉴스

르면, 지난 8월 기준 신용카드 승인건수는 15억5000만건으로, 전달(15억7000만건)과 비교했을 때, 2000만건 감소했다. 전년 동월(15억4000만건)과 비교하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용카드 승인금액도 줄었다. 8월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81조3000억원으로, 7월 신용카드 승인금액(85조4000억원)에 비해 4조1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다만, 전년 동월(78조원)과 비교하면 4.2%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발생한 연체로 인해 신용거래 접근이 막혀 있던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 고객 확보 및 휴면 고객의 시장 유입이 가능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단, 신용사면이 업계 실적 회복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

다. 사면으로 신용카드 및 카드로 이용고객이 증가한다고 해도, 사면 대상인 취약차주들의 기초 금융 체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연체율만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요한 건 신용카드 대금과 함께 카드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라며 “신용사면으로 신용점수가 회복돼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카드를 사용하면 대출이 상승해 자산건전성만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로 대환대출 잔액은 1조5811억원으로 전달(1조5282억원)보다 529억원 증가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카드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다시 받아 갈아타는 것을 뜻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